

바톤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잔란한 존재다.
갈채도, 스포트라이트도 모두 그에게 쏟아진다.
그렇다고 다 지휘자가 되기를 고집할 수는 없는 일이다.
베토벤 심포니 9번을 연주하기 위해서는
바이올린도, 트럼펫도, ... 첼로도 있어야 한다.
30분을 카운터 뒤에있는 약방주인처럼
우두커니 서 있어야 하는 팀파니 주자도 있어야 한다.
그 뒷자리를 지키는 팀파니가 없다면
“환희의 송가”는 감동의 반을 잃어버린다.
눈여겨 보는 이 없어도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.
두드러져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잘 어울리기 위해서.
사회도, 화사도 하나의 오케스트라.
한일그룹은 전체의 하모니를 위해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
숨은 일꾼들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냅니다.

팀파니 奏者에게 갈채를—

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. 두드러져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잘 어울리기 위하여.

